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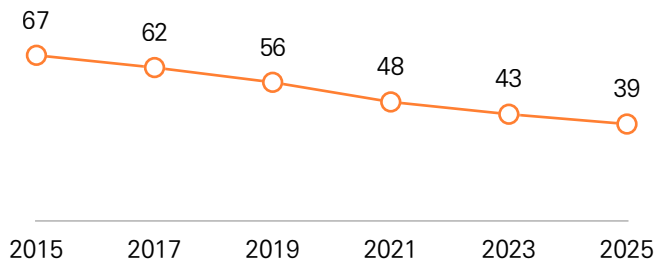


[2025 국민 독서실태]

성인 독서율, 지난 10년간 지속 하락하며 30%대로 추락!

- 우리 국민은 책을 얼마나 가까이하고 있을까? 독서의 계절 가을을 맞아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3월 발표한 ‘국민 독서실태’ 결과를 살펴본다.
- 한국 성인의 지난 10년간 독서율 추이를 살펴보면 2015년 67%였던 종합 독서율은 지속 감소하여 2025년에는 39%까지 급감했다.
- 종합 독서율은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4명가량(39%)만이 1년에 책 1권 이상 읽거나, 들었음을 의미하는데, 지난 10년 새 독서 인구 비율이 절반 가까이 급감했음을 보여준다.

[그림] 연간 종합 독서율 추이* (만 19세 이상 성인,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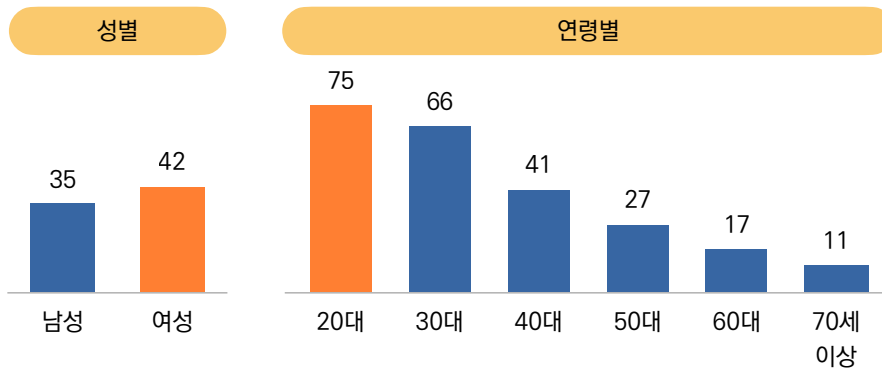
※출처 :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, ‘2025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’ 결과 발표, 2026.03.06.(만 19세 이상 성인 5,000명, 가구방문면접조사, 2024.09.~2025.08.)

*연간 종합 독서율: 지난 1년간 일반도서(교과서, 학습참고서, 수험서, 잡지, 만화 제외)를 1권 이상 읽거나 들은(종이책, 전자책, 오디오북 포함) 사람의 비율

‘여성’과 ‘저연령층’에서 독서율 높아!

- 성별 및 연령별 연간 종합 독서율을 살펴보면, 성별로는 여성(42%)이 남성(35%)보다 7%p 높게 나타났다. 연령 별로는 20대의 독서율이 75%로 가장 높았으며, 30대 66%, 40대 41%, 50대 27%, 60대 17%, 70대 이상 11% 순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독서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다.

[그림] 성별·연령별 종합 독서율 (2025, 만 19세 이상 성인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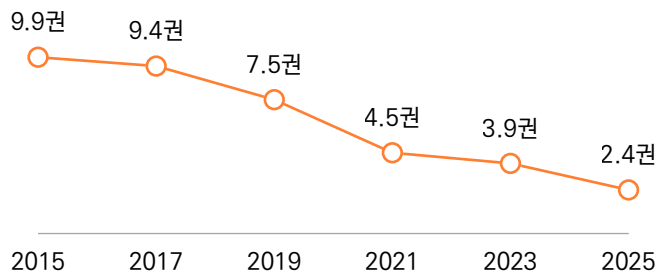


※출처 :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, ‘2025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’ 결과 발표, 2026.03.06.(만 19세 이상 성인 5,000명, 가구방문면접조사, 2024.09.~2025.08.)

성인 1년 독서량, '평균 2.4권'!

- 우리 국민(성인 기준)의 지난 1년간 연간 종합 독서량은 평균 2.4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. 이는 10년 전인 2015년 평균 9.9권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해 4분의 1 수준(7.5권 감소)으로 급감한 수치다. 독서율 하락과 맞물려 성인 1명이 1년 동안 읽는 책의 수량 자체도 현저히 줄어들었음을 보여준다.

[그림] 연간 종합 독서량 추이* (만 19세 이상 성인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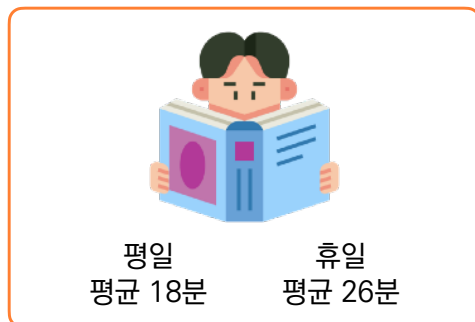
※출처 :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, '2025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' 결과 발표, 2026.03.06.(만 19세 이상 성인 5,000명, 가구방문면접조사, 2024.09.~2025.08.)

*종합 독서량: 종이책(일반도서)+전자책+오디오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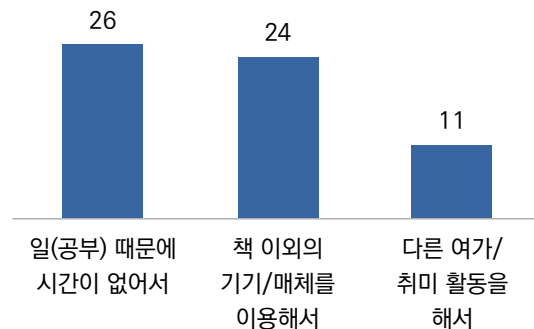
성인 하루 평균 독서 시간, 평일 '18분'·휴일 '26분'에 불과

- 우리 국민(성인 기준)의 하루 평균 독서 시간은 평일 18분, 휴일 26분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.
- 책을 읽기 어려운 주요 장애 요인으로서는 '일이나 공부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'(26%)가 가장 많이 꼽혔으며, '책 이외의 기기/매체를 이용해서'(24%)가 바짝 뒤를 이었다. 일상적인 업무(공부) 부담과 더불어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 이용의 증가가 성인들의 독서를 방해하는 주된 원인임을 알 수 있다.

[그림] 하루 평균 독서 시간* (2025, 만 19세 이상 성인)



[그림] 독서 장애 요인 (2025, 만 19세 이상 성인, 상위 3개, %)



※출처 :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, '2025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' 결과 발표, 2026.03.06.(만 19세 이상 성인 5,000명, 가구방문면접조사, 2024.09.~2025.08.)

*각 매체별(종이책(일반도서)+전자책+오디오북) 평균 독서 시간을 합산한 값임